

## 다문화가정 연구개관과 향후 방향성\*

김 근 영<sup>†</sup>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곽 금 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배 소 영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는 최근 심리학을 비롯한 국내 사회과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끈 주제이다. 본 연구는 2000년대 발표된 다문화관련 심리학적 국내 연구들을 개관하고 이를 해외 연구들의 추세와 비교해 보며, 국내 다문화가정 연구들의 경향성을 통해 향후 대두될 연구주제를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국내 연구의 개관을 통해 현재 다문화 연구들에서는 특히 비교대상의 부재, 그리고 청소년 및 아버지를 포함한 연구대상의 부재가 두드러졌으며, 또한 다문화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는 연구 및 다문화 구성원의 정신병리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또 보다 심층적인 문화적응론에 대한 제시도 외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들 주제가 미래의 다문화가정 연구의 핵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 다문화가정, 국제결혼, 다문화아동, 문헌개관

---

\* 본 연구는 2007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 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KRF-2007-321-B00148).

† 교신저자: 김근영,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E-mail: king@hallym.ac.kr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결혼 수치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마스크 및 학술자료에 의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1994년 6천 건에서 2005년 43,121건으로 10여년 사이에 7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총 혼인건수의 13.6%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이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의 국제결혼 증가추세만 놓고 보면 94년 3천 건에서 2006년 3만 208건으로 10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 여성과의 결혼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의 경우 2000년 95건에서 2006년은 10,131건으로 무려 10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한중수교 직후인 90년도 약 88건에서 15년 후인 2005년은 20,635건을 기록해 227배의 증가율을 보였다(통계청, 2008).

국제결혼의 급증과 더불어 이들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자녀들은 국내의 관련 학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연구주체로서 비상한 관심을 얻고 있다. 그에 수반하여 양적인 연구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만, 반면 다문화가정 연구의 방향성과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여기에는 한국의 국제결혼의 독특성이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보이고 있는 국제결혼 양상은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미국에서는 70년대에 ‘전쟁신부’(Glenn, 1986)라는 양상으로, 그리고 신흥이민국인 대만이나 일본에서도 이미 90년대 초중반(보건복지부, 2005)에 나타난 후 현재로서는 많이 사라진 형태이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게

된지도 약 10여년이 지났으며 이미 1,5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에 대한 상당수의 주제들이 심리학자들의 관심사와 겹침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들의 다문화연구에 대한 기여는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본 글은 이러한 다문화가정 연구의 필요성에 맞춰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국내외 심리학적 연구들을 간단이나마 정리해보고, 앞으로 국내에 대두할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을 몇 가지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글의 대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를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관련된 주요 심리학적 연구들의 진행 추세와 외국의 연구경향성을 기술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본문에서 언급되겠지만 현재 국내논문 가운데 심리학자에 의해 작성된 논문은 극히 소수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심리학적 연구’는 심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라기보다는 심리학자들의 전통적 관심 주제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을 밝힌다. 둘째, 연구 개관을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기술하고 이후 다문화가정 연구에 있어 고려해야 할 내용과 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개관의 접근은 연구자가 이론적인 개념을 시작점으로 하여 다문화가정에 있어 중요한 변인을 먼저 선정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먼저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연구된 주제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경험적인 방식으로 추후의 주제를 제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다문화가정 연구의 개관: 양적 개관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와 외국의 연구 경향사

이에는 어떠한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양적 개관과 내용적 개관을 실시하였다. 국내 논문의 양적 개관을 위해서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자료 중 ‘다문화가정’ ‘국제결혼’ ‘코시안’ 등 다문화 관련 검색어를 통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009년 6월 현재까지 국내의 다문화관련 논문으로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는 총 1,674건으로써 이 중 학위논문이 572건, 그리고 학술자료로 등록된 글이 1,102건 이었다. 여기에서 본 연구를 위한 기준을 개관수준(1차 양적개관: 논문의 숫자만 개관, 2차 양적개관: 논문의 주제어 개관, 3차 내용적 개관: 논문의 내용 및 방법론 개관)에 따라 몇 가지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문헌조사를 하였다. 먼저 1차 개관 논문의 기준으로써 첫째, 학위논문의 경우 특수대학원 수여논문은 배제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일부 특수대학원 논문들의 경우 타당성이 의심되는 연구가 발표되기 때문으로, 형식적으로나마 논문의 타당성을 담보할 가장 쉬운 방법으로써 본 대학원의 논문으로만 대상을 한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학위논문 중 21%에 해당되는 121편의 논문이 다문화가정에 대해 연구한 논문으로 검색되었다. 둘째, 학회지 논문의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만으로 한정하였는데, 이 경우 총 573편의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다. 1차 개관에서는 심리학적 연구만이 아닌 국내에서 발간된 모든 논문이 포함되었다.

이 논문들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 따르면 다문화관련 연구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음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2000년대 이전 연간 5편 정도로 드물게 발표되던 논문이 2000년 중반을 기점으로 매년

표 1. 국내 다문화 가정 관련 논문의 연도별 발표 갯수

연도	학위논문수	학술지 논문수
1975	1	
1987		1
1993		1
1995		1
1996		4
1997		1
1998		5
1999	1	4
2000	1	6
2001		10
2002	4	14
2003	1	18
2004		10
2005	2	30
2006	6	56
2007	36	131
2008	56	168

두 배 이상의 양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차 양적개관은 1차 개관 시 선정된 연구들 중 심리학 관련 연구만을 대상으로 한국과 외국의 연구경향성을 비교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국내 논문의 경우 1차 개관 논문들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논문들의 주제어를 알아보았다. 그 기준으로 첫째, 논문의 원본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는 학위논문은 배제하고 학진 등재지 및 후보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둘째, 심리학 혹은 심리학과 큰 관련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학문분야

(예, 사회복지학, 정신간호학, 사회학, 교육학 등)에서 발행된 연구만을 기초로 하였다. 국내에서 심리학적 연구인지 아닌지를 규정하는 공식적인 잣대가 없기 때문에 다소 주관적인 기준이 개입될 수 있으나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일단 1차 개관된 논문 중 심리학 및 관련학문 단체에서 발행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모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논문 제목이나 초록 상 심리학의 연구주제라고 판단된 논문은 하나씩 읽어본 후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경우 총 119개의 논문이 검색기준에 부합하였다.

외국의 연구동향을 위해서는 PsycNET를 통해 논문의 주제어를 조사하였다. 다문화관련 논문의 수가 한국에 비할 바 없이 많은 외국의 경우를 전수 조사방식으로 살펴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최근의 동향만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PsycNET에서 다문화 관련 검색어를 이용하여 제시된 연구논문들 중 첫째, SCI 혹은 SS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으로 제한하였으며, 둘째, 이를 학술지가 발표된 최근 연도순으로 배열한 후 여기서부터 총 500편의 연구들의 주제어만 한정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 결과 2007년도 중반 이후에 발표된 연구들만 본 개관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2007년 이후 외국에서 발표된 다문화관련 논문들의 주제어의 빈도가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주제어만 가지고 판단하면 한국에서 연구되는 주제들과 외국의 최근 연구들은 유사점과 함께 차이점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 중 몇 가지를 요약하자면 첫째, 외국의 경우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정신 병리적 측면(예, Walsh, Shulman,

표 2. 학진등재지 게재 다문화가정 관련 심리학적 논문의 주제

순위	주제	%
1	사회정서적 적응, 스트레스	20
2	결혼적응, 만족도, 부부갈등	11
3	문화적응, 문화정체성	10
4	한국어능력, 이중언어	8
4	다문화교육	8
6	양육, 부모자녀관계, 가족관계	7.7
7	자아정체성, 자아존중감	7.2
8	태도, 편견, 고정관념	5.5
9	한국어 교육	5
10	학업성취, 학교생활	2

표 3. 2007년 이후 SCI, SSCI등재 다문화관련 심리학적 논문의 주제

순위	주제	%
1	문화적응, 문화정체성	18
2	정신건강, 정신질환	7
3	태도, 편견, 고정관념	5
4	사회정서적 적응, 스트레스	4.8
5	문화차, 민족 및 인종간 차이	4.7
6	사회경제적요인	4.4
7	양육, 부모자녀관계, 가족관계	3.1
8	건강관련행동	2.9
9	학업성취, 학교생활	2.4
10	정치참여, 투표성향, 정치성향	2.3

& Maurer, 2008)이나 이와 관련된 의료기관 이용도, 심리적 서비스 이용에 대한 연구(예, Kamperman, Komproe, & de Jong, 2007)가 매우 많은 편인데 반해 아직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둘째, 문화적응은 아직까지도 외국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는 주제이며, 한국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다. 하지만 외국 연구들의 경우 특정 이민자 집단이 특정 사회에서 어떤 방식의 문화적응을 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물음을 제시하는 연구(예, Duru, & Poyrazli, 2007)가 많고, 문화적응 이론화(예, Schwartz & Zamboanga, 2008) 및 측정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예, Dillon et al., 2009)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문화적응론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나 방법론적 연구는 한두편에 불과하다. 셋째, 외국의 경우 정치참여, 투표 등 한국에서 다루지 않은 주제들이 상당수가 연구되고 있는데, 이는 아직 다문화사회 형성 시기가 최근인 한국에서 다루기 어려우며, 또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국 상황과 맞지 않는 주제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학계의 한계라기보다 오히려 한국의 다문화 사회가 지속되다보면 자연스럽게 대두될 주제들이라고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본 개관에서 보여진 국내 연구와 외국 연구 경향의 차이점 중 추후 국내 연구들이 주목해야 할 점으로써는 첫 번째 부분인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두 번째 차이점인 ‘심층적인 문화적응 연구의 필요성’이라 요약할 수 있다. 이 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내용적 개관을 한 후 한꺼번에 언급하기로 하겠다.

### 다문화가정 연구 개관: 내용 개관

개관작업의 마지막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내 심리학적 연구를 내용 면에서 개관하는 가

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3차 개관에서는 2차 개관에서 선정된 총 119개의 논문들 중 본 학회지인 한국심리학회지: 일반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으로, 1) 심리학 관련 분야 등 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으로써, 2)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연구 참여자로 참가시킨, 3) 양적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경험적 논문에 한하여 내용 개관을 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선정한 이유는 본 학회지의 성격상 다양한 분야의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공통분모는 방법론적으로 경험적 연구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준으로 논문을 제한하였을 때 앞의 2차 개관 대상 논문들 중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3차 개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첫째, 경험적 연구가 아닌 이론적, 정책제안 논문. 둘째,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연구 참여자로 참가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연구. 셋째,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외국인에 대한 시각,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 등을 연구한 자료. 넷째, 고전적으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양적 통계기법을 사용한 경험적 연구’의 범주에 들지 않는 질적 연구, 사례 연구 등이다. 질적 연구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함의를 제공해주며, 특히 현재처럼 다문화사회가 막 형성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권장되는 연구 방법론 중 하나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학회지의 성격상 많은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방법론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물론 본 개관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결코 이 연구들의 가치가 경험적 연구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질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뒤의 논

의부분에서 다시 밝히기로 하겠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국내 다문화가정 연구들을 한정하였을 경우 총 32편의 연구가 위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다. 표 4는 이 연구들의 간략한 소개와 요약이다.

표 4에서 언급된 32개의 연구들 중에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8개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어머니 연구도 주제별로 보았을 때는 매우 한정된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관 연구 중 어머니의 건강추구행동(안양희, 2008),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이진숙, 2007), 그리고 Berry의 문화적응 모델에 특화하여 적용한 연구(최혜지, 2009)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연구는 결혼이주를 통해 한국으로 이민 온 외국인 여성의 결혼만족도, 양육관련 스트레스, 갈등유형,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에 수반하는 적응문제와 그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을 주로 설문지 방식을 통해 조사하는 연구라고 규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적응’에 관한 국내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결혼만족도 자체는 이주 여성과 한국여성간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예를 들어, 박정숙, 김진희, 박옥임(2007)의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가족갈등 점수는 5점 만점에 2.24, 생활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1로써, 일반적인 한국가정에 비해 크게 낮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권복순, 차보현(2006)이나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2007), 홍달아기, 채옥희(2007)의 조사에서도 결혼만족도의 차이가 없던지 오히려 국제결혼가정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반면에 김오남(2006)의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정도가 5점 척도에서 평균 약 3 정도로써, 한국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대체로 2이하 수

준으로 떨어진다는 점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라고 보고하고 있어 모든 연구가 일관된 보고를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국적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본 연구들이 종종 발견되는데, 대체로 결과가 중국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반면 필리핀인과 일본인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편이라는 결과가 많다(예, 양순미, 2007a; 홍달아기, 채옥희, 2007). 반면 특이하게도 아동의 경우 부모가 일본인인 경우가 중국인인 경우보다 적응도가 더 높다는 결과가 몇몇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는데(안효자, 2008; 이영주, 2008), 이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이주여성의 적응 연구들의 경우 거의 그들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갈등들의 특징과 상대적 기여도를 탐색하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양순미(2007a)는 사회경제적 변인과 결혼지속기간, 결혼 프로그램 참여도 여부가 적응에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권구영, 박근우(2007)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교육수준이나 거주지 등을 통제할 때에도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그리고 심리학적 변인들, 예컨대 거주지역(김진희, 박옥임, 2008), 가족형태(송미영, 박경희, 2008), 연령(송미영, 박경희, 2008; 홍달아기, 채옥희, 2007), 자녀의 수(박정숙 등, 2007), 자아존중감(김오남, 2006), 사회적지지(김오남, 2007), 한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권복순, 차보현, 2006; 김진희, 박옥임, 2008), 그리고 지역사회 교류정도(정천석, 강기정, 2008)등이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한국인에게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한다면 이러한 결

표 4. 3차 개관시 선정된 다문화가정 연구들의 연구결과 요약 (가나다순)

저자	학문분야	연구주제	국적 비율	조사방식	조사언어	N	조사대상	비교집단
구효진 등 (2007)	유아 교육학	인지기술	언급 없음	행동척도	한국어	147	자녀 (유아)	없음
권구영 등 (2007)	사회 복지학	어머니의 정신건강	필리핀 51% 베트남 18%	설문지	한국어	150	모친	없음
권복순 등 (2006)	사회 복지학	문화정체성 결혼만족도	중국 33% 베트남 29%	설문지	4개 국어	84	모친	없음
김도희 등 (2007)	가족학	양육관련 스트레스	필리핀 42% 베트남 26%	설문지	4개 국어	102	모친	없음
김선정 등 (2009)	언어 청각학	이중언어	일본 33% 중국 30%	언어검사	한국어	70	자녀 (아동)	있음
김영옥 등 (2008)	유아 교육학	양육태도	필리핀 42% 일본 34%	설문지	한국어	103	모친	없음
김오남 (2006)	가족학	부부갈등	필리핀 67% 일본 22%	설문지 면접	한국어 영어 일어	174	모친	없음
김오남 (2007)	가족학	문화적응 스트레스	필리핀 37% 베트남 31%	설문지	5개 국어	153	모친	없음
김진희 등 (2006)	사회학	가족갈등 생활만족도	베트남 33% 일본 26%	설문지 면접	주로 한국어	127	모친	없음
박경자 등 (2007)	아동학	사회유능감 자아개념	필리핀 50% 중국 3%	행동척도 교사설문	한국어	151	자녀 (유아)	있음
박순희 등 (2008)	사회 복지학	자아정체성 문화수용	일본 53% 중국 29%	설문지	한국어	149	자녀 (청소년)	없음
박원경 등 (2007)	특수 교육학	언어능력 지식기반력	언급 없음	언어검사	한국어	36	자녀 (아동)	있음
박재규 (2007)	사회학	이혼의도 이혼시도	중국 35%, 필리핀 31%	설문지 면접	모국어	608	모친	없음
박정숙 등 (2007)	가정 관리학	가족갈등 생활만족도	베트남 33% 일본 26%	설문지	주로 한국어	127	모친	없음
박행모 등 (2008)	교육학	사회적응도	베트남 36% 중국 34%	설문지	한국어	155	모친	없음
서홍란 등 (2008)	가족학	양육관련 스트레스	베트남	설문지	한국어 모국어	69	모친	없음
송미영 등 (2008)	사회 복지학	결혼만족도	중국 47% 베트남 32%	설문지 면접	한국어	107	모친	없음
안양희 (2008)	간호학	건강지수 건강행위	베트남 28% 필리핀 22%	면접 신체지수측정	한국어	50	모친	없음

표 4. 3차 개관시 선정된 다문화가정 연구들의 연구결과 요약 (가나다순) 계속

저자	학문분야	연구주제	국적 비율	조사방식	조사언어	N	조사대상	비교집단
안혜령 등 (2009)	아동학	학업성취	일본 47% 중국 39%	지능검사 학교성적	한국어	160	자녀 (아동)	있음
안효자 (2008)	간호학	학교적응 정신건강	일본 41% 필리핀 27%	설문지	한국어	168	자녀 (아동)	없음
양순미 (2007a)	사회학	부부행복도	중국 33% 일본 33%	설문지 면접	한국어 영어	150쌍	모친 부친	없음
양순미 (2007b)	심리학	학교적응 행복도	일본 52% 중국 21%	설문지 면접	한국어	62쌍	모친 아동	없음
우현경 등 (2009)	아동학	언어발달	일본 41% 필리핀 29%	언어검사	한국어	91	모친 아동	없음
이영주 (2007)	심리학	심리사회적 적응	일본 53% 중국 18%	설문지 면접	한국어	1151	자녀 (아동)	없음
이영주 (2008)	사회 복지학	적응의 보호요인	언급 없음	설문지 면접	한국어	1313	자녀 (아동)	없음
이진숙 (2007)	유아 교육학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일본 37% 필리핀 31%	설문지	5개 국어	242	모친	없음
이현경 등 (2009)	유아 교육학	전반적 발달	필리핀 46% 일본 19%	교사평정	한국어	267	자녀 (유아)	없음
정은희 (2004)	언어 청각학	언어능력 평가	일본 63% 중국 26%	언어검사 모친설문	한국어	19쌍	모친 유아	없음
정천석 등 (2008)	사회 복지학	심리사회적 적응	필리핀 56% 베트남 16%	설문지 면접	한국어 영어	25	모친	없음
최혜지 (2009)	사회 복지학	문화적응	중국 29% 베트남 25%	설문지	모국어	347	모친	없음
홍달아기 등 (2007)	가정 관리학	부부갈등 의사소통	필리핀 25% 베트남 24%	설문지	한국어	140	모친 부친	없음
황상심 등 (2008)	언어 청각학	언어능력 평가	일본 필리핀	언어검사	한국어	68	자녀 (유아)	있음

Note: '학문분야'는 게재 학회지의 학문분야임.

과들은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아존중감과 적응이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사실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들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전

반적인 경향성으로 봐야 할 것이다.

기존 연구들의 이러한 연구 경향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개관대상 연구 중 한국인 어머니를 비교집단으로 선정한



연구는 한편도 없었기 때문이다. 비교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인 집단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변량분석적인 방식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상관기법을 통해 탐색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연구보다는 소수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대상은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아동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의 경우는 거의 두 가지 주제, ‘적응과 발달(9편)’이라는 점과 ‘한국어능력(5편)’이라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 역시 어머니 대상 연구들과 거의 같은 연구 양상 및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과 발달연구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요약하자면, 대체로 이들은 전체적인 적응(안효자, 2008), 유아발달지표(이현경, 서현, 김동례, 2009), 그리고 자아존중감(양순미, 2007b) 등에 있어서는 한국인 집단, 혹은 절대적 평균치와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없었으며, 지능에 있어서도 100이상의 평균을 상회하는 점수를 보이고 있다(안혜령, 이순형, 2009).

아동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어머니 대상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통제집단을 설정한 연구가 단 두 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직접 비교가 쉽지 않다. 하지만 직접 비교를 실시한 그 두 개의 연구(박경자, 김송이, 2007; 안혜령, 이순형, 2009)의 결과만 가지고 해석하였을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전반적인 적응력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는 증거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박경자와 김송이(200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유아가 한국인 통제집단에 비해 사회적 유능성의 몇 가지 행동적 측면(예, 위축행동)에서

유의미하게 더 부정적인 행동을 보고하였다. 다만 이 연구의 결과는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안혜령과 이순형(2009)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능을 통제한 후에도 일반 아동보다 학업성취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연구의 결과는 학업능력과 가장 관련이 깊은 지능지수를 통제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인들 대상으로 표준화가 끝난 절차를 이용하여 절대점수를 표준화집단과 비교한 구효진, 최진선(2007)의 연구에서도 놓여촌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경우 한국인 통제집단 유아에 비해 전반적인 인지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영역(예, 지식습득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아직 연구의 절대적 수치가 적기 때문에 쉽게 일반화를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지라도 현재까지의 연구들의 결과는 최소한 아동의 인지기능과 관련된 능력에 있어서 다문화 가정 아동은 불리하거나, 최소한 유리하지는 않다는 점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보고되는 원인에 대해서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부족에 따른 학습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으나, 정확한 경험적 연구의 결과는 아직 도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 이외의 아동 적응 연구는 한국인 통제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대체로 어머니 연구와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적응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탐구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또래관계에서의 수용,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의 지지

(양순미, 2007b), 자기 효능감(박순희, 조원탁, 이주희, 2008), 아버지의 나이(안효자, 2008), 가정경제력과 생활수준(안효자, 2008; 이영주, 2007), 그리고 아동의 연령(이영주, 2008; 이현경, 서현, 김동례, 2009) 등에 따른 다른 적응양상을 보고하고 있다. 다만 어머니 연구의 결과에서 언급한 바대로 이러한 경향성은 굳이 다문화가정 아동뿐만이 아닌 모든 아동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만의 특수문제라 부르기 어렵다.

다문화 아동에 대한 두 번째 주제는 한국어 습득 및 한국어 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으로써, 이들 연구는 모두 특수교육이나 언어척각학계에서 발표된 논문들이다. 언어발달에 대해서는 한국인 대상으로 표준화된 점수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 주제에 대해 현재 본 연구에서 개관대상이 된 논문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한국인 통제집단을 상정하였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들의 결과는 대체로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어 능력은 일반아동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원경, 안성우, 서유경, 신영주, 2007; 우현경, 정현심, 최나야, 이순형, 이강이, 2009; 정은희, 2004; 황상심, 정옥란, 2008). 이는 단순히 전체적인 언어능력 면만이 아닌 수용어휘, 표현어휘, 어휘 이해력 등 언어발달의 세부사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고되고 있어(김선정, 강진숙, 2009; 황상심, 정옥란, 2008), 나름대로 일관되게 언어발달의 지체가 보고되고 있는 편이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이중언어 환경에 놓인 아동들이 언어습득을 하는 초기에 발견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며(이귀옥, 전해정, 박혜원, 2003), 연령이 증가하면서 차이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존재한다. 한국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의 지체가 이 주장처럼 일시적인 현상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위에서 언급된 이귀옥 등(2003)의 연구는 중국 연변의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한국에서 자라는 다문화 아동은 꼭 이중언어자일 필요가 없는 맥락이라는 점에서 위의 주장이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

이외에 본 3차 개관에는 아버지나 청소년 자녀가 참가한 연구가 거의 없으며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가정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의 다문화관련 연구는 매우 한정된 대상과 주제만을 다루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3차에 걸친 개관작업을 토대로 보았을 때 국내에서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다문화가정 연구들은 몇 가지 특징과 그에 따른 명확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를 요약하자면 첫째, 동일 연구에서 한국인 비교집단을 설정한 연구는 극히 소수이다. 또 다문화가정 구성원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의 둘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가족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버지를 포함시킨 연구는 매우 소수이다. 둘째, 아직까지 대부분의 연구가 어머니의 적응을 주제로 삼고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험적 논문은 거의 없는 편이다. 셋째, 다문화가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형태인 ‘아버지가 외국인인 어머니가 한국인’인 형태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는 본 기준에 부합된 심리학적 연구로써

는 한편도 게재된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다문화가정 구성원은 적응에 문제가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연구주제 면에서 갈등, 적응에의 어려움, 문제행동 등에 한정되고 있다. 이에 덧붙여 2차 개관에서 제시된 두 가지 연구의 부족, 즉 1)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와 2) 심층적인 문화적응 연구가 현재까지 국내 연구에서 실시된 다문화가정 연구들의 내용적, 방법론적인 특징이자 한계라고 할 수 있다.

### 다문화가정에 대한 기존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 주제

개관작업을 통해 드러났듯이 국내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실태조사’ 수준의 상관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개관작업을 통해 제시된 총 6개의 국내연구의 경향성을 하나씩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한계를 논의하고 미래에 대두될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여기서 밝히는 기존 연구의 경향성은 중요도순이라기보다는 논리전개상 관련이 있는 개념부터 임의로 선정하였음을 밝힌다.

#### 통제집단, 가족구성원의 확대 필요성

기존의 국내 논문들을 개관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한계점이자 개선점으로 통제집단의 부재,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2인 이상의 구성원을 포괄적으로 섭렵한 연구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들의 경우 결혼이민자 여성이나 다문화가정 아동을 독립변인의 한 구성요소로 삼아 기존

의 한국인 대상의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적응관련 종속변인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표 4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연구들 중 통제집단, 즉 결혼이민자가 아니면서 같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한국인 가정을 상정하여 비교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기존 연구들의 경우 보통 이전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단순 비교한다든지, 혹은 간단한 절대적 기준(예, 5점 척도에서 3점 이하)을 중심으로 해석한 경우가 많다. 아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적응문제를 직접 비교한 경우보다 단순히 아동에게 한마디 물어보는 식의 접근으로 과대해석을 한 연구들도 발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적응이 문제가 된다는 점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으나 이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연구 결과는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통제집단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해석에 있어서의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그 이유로 첫째, 이러한 간접적인 비교는 지역 차, 학력 차, 소득수준 차등의 사회경제적 변인을 연구자가 통제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혼입변인이 개입될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표준편차를 알지 못하는 한 통계적인 차이를 계산할 수 없다는 실제적 문제점도 대두된다. 둘째로, 이민여성의 경우 많은 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여성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 특히 ‘대안의 부재’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몇몇 사례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이정희, 2007), 이민여성의 경우는 결혼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들이 그러한 결혼생활을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찾게 될 가능성이 한국여성에 비해 현실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설문 응답시 인지부조화 기제가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즉 이러한 통제집단의 부재와

단순비교를 통해서 이주여성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한국인 통제집단을 상정한다고 해서 다문화가정 연구의 함의를 자동적으로 높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한국인 통제집단과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특정 심리적 변인(예, 가족갈등의 정도)에 있어 낮은 수치를 보인다고 해도, 그 정보 자체는 왜 이들이 더 낮은 수치를 보이는지에 대한 답변은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본질적인 연구의 방향성은 다문화가정만이 가진 특수성(예, 한국어 학습능력, 문화적응과 관련된 이슈들)이 이들과 일반집단간의 차이를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설명하는지를 알아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일단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실제로 한국인 통제집단에 비해 특정 변인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지를 경험적으로 타당하게 뒷받침할 자료가 더욱 축적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연구 방식상의 특징으로써 현재의 연구들은 거의 어머니와 아동중의 한 집단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와 아동을 모두 포함시킨 연구나, 그들간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알아보는 연구는 소수만이 보고되고 있는데(예, 양순미, 2007b; 전은애, 2008), 이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연구 설계가 복잡해진다는 점, 어머니와 아동에 있어 다른 언어로 연구 설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의해 그러하다. 다만 어머니나 아동의 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어머니와 아동간의 관계의 질에 따라 각자의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는 발표되고 있다(강석광, 2007; 김영옥, 임진숙, 정상녀, 2008; 정윤정, 2007; Kwak, 2009).

이 부분 역시 기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머니와 아동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탐구하는 연구는 그 분석의 단위가 '가족'이 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의 현실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이슈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연구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역동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심층적인 연구 성과는 발표되고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는 한국인 아버지이다. 하지만 한국인 아버지에 대한 부분 역시 기존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부부관계처럼 본질적으로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관련된 변인을 다루면서도 어머니의 답변에만 의존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 미래의 심리학적 연구에서는 가족의 모든 구성원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간의 역동이 어떻게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처럼 다문화가정 구성원 개인에 초점을 맞추다기 보다는 가족의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 단위로 삼는 연구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다문화 구성원의 정신질환

표 3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외국 연구들의 상당수는 이민자의 정신질환의 증상 및 패턴, 원인, 치료효과에 할애되고 있다. 반면 국내 연구들의 경우 구체적인 임상적 내용을 담고 있는 연구는 심리학 분야에서는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간호학(예, 안효자, 2008)에서 간간

히 관련논문이 발표되고 있지만 아직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는 전무에 가깝다고 해도 과장은 수준이다. 이는 현재 다문화가정 연구들이 대부분 이민자 자신과 그 자녀들이 정신질환의 위험집단군에 속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외의 일이다.

이러한 연구수의 부족은 여러 이유에 기인할 수 있다. 먼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로, 원래 정신질환은 소수의 사람들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절대적인 수치가 아직도 소수인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조합한다면 당연히 그 수가 더더욱 적을 수밖에 없어 논의할 가치가 적다는 기계적인 접근이다. 물론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아직도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는 소수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현재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을 100%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는 증거도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총수는 2007년 기준으로 765,429명으로 이 수치만 가지고 보았을 경우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터키계 이주자의 총 수인 372,714명(Statistics Netherlands, 2009)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도 터키계 이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논문이 상당수가 발표되었다는 점을 본다면(예, Bengi-Arslan, Verhulst, & Crijnen, 2002; de Wit et al., 2008), 절대적인 인구의 수의 부족으로 인해 정신질환의 보고나 관련 연구가 없다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이민자의 수보다는 그들이 과연 특정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보고할 것인가의 동기적인 부분과, 대부분 농촌지역에 위치한 다문화구성원의 특성상 그들이 심리적 문제를 호소한다고 해서 의료기관을 쉽

게 이용할 수 있는지의 접근성의 부분에서 현재의 추세를 설명하는 것이 더 그럴듯하다.

실제로 외국의 연구들에 비추어 보면, 이민자 집단은 문화적 스트레스를 통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신보건 서비스를 내국인보다 더 많이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데(Kamperman, Komproe, & de Jong, 2007; Lindert, Schouler-Ocak, Heinz, & Priebe, 2008), 여기에는 이민자의 동기, 의료기관에 대한 태도, 과거의 본국에서의 경험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지만(cf., 안양희, 2008), 외국에서는 최근 많이 다루는 주제인 ‘정신건강기관 이용’과 관련된 연구들(표 3 참조)은 이러한 이민자의 정신보건 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문화가정 구성원은 실제로 정신병리를 더 호소하는 집단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언어문제, 문화적응 문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의 위험군에 해당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예, Lynch, 1992; Sodowsky & Lai, 1997)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되지 못한 편이다. 이민자와 이민자의 자녀가 해당사회의 다수집단보다 더 많은 우울, 약물중독, 불안장애등으로 진단된다는 연구는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예, McLaughlin, Hilt, & Nolen-Hoeksema, 2007; Roberts & Sobhan, 1992), 오히려 이민자였다는 사실이 정신건강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문제행동을 줄일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Georgiades, Boyle, Duku, & Racine, 2006). 기존의 개관 논

문들도 대체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예, Stevens & Vollebergh, 2008), 예를 들어 Rogler, Cortes와 Malgady(1991)는 기존의 문헌들 중 약 반수의 논문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정적인 관련성을, 그리고 나머지 반수는 대체로 부적인 관련성을, 그리고 일부 연구들이 비선형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국내에서는 거의 연구가 없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으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체화 장애, 강박증, 우울, 편집증 등에서 오히려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안효자, 2008), 기존의 믿음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더 정신질환을 호소하는지 여부는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주제이다. 하지만 그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정신질환에 취약성을 가진다는 가정이 맞다면 이들의 정신병리와 보건서비스 이용의 문제는 언젠가는 분명히 이슈화가 될 것이며, 그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리로 고통받고 있을 시기일 지도 모른다. 따라서 국내 임상심리학자들이 미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주제임에는 분명하다.

#### 다문화 경험은 언제나 부정적인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주제들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정신건강에 있어서 위험집단군에 해당됨을 보여준다. 이는 외국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가정 중의 하나이다(예, Berry, 1994; Helman, 1990).

현재 국내의 다문화가정 연구는 거의 100%가 다문화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불리하다는 관점에서 기술되고 있으며, 다

문화경험의 긍정성의 차원이 연구된 경우는 국내의 경우 몇몇 이중 언어 연구(예, 권미지, 박상희, 석동일, 2007; 이귀옥, 전해정, 박혜원, 2003)를 제외하고는 전무하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위험집단이라는 것과 다문화 경험이 언제나 부정적이라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최근 미국 내 몇몇 학자들을 중심으로 다문화경험의 긍정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다문화경험을 매우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하는 국내 학계의 관행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려는 예로써 두 가지 연구 테마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경험이 개인의 창의성(creativity) 발달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관련된 연구가 최근 2년 사이 속속 발표되고 있으며(Leung, & Chiu, 2008; Leung, Maddux et al., 2008), 이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Maddux et al., 2009; Rich, 2009). 국내에서도 2008년 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를 통해 다문화경험이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미 시작되었다(권성우, 장재운, 2008). 창의성이란 인지적으로 유연한 사고(flexible thinking), 혹은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수록 사고의 유연성을 배양할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이 다문화경험과 창의성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주요 설명양식이 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확산적 사고가 주로 요구되는 도덕발달의 상위단계인 후인습적 사고의 경우 다문화 경험이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Endicott, Bock, & Narvaez, 2003)와 함께, 음악 등 특히 창조성이 강조되는 수업일수록 다문화적 접근이 유리하다는 연구(Abril, 2006)도 발표되고 있다.

즉, 창의성 발달의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집단 아동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둘째, 다문화 연구에서 10년전 쯤 제안이 되었으나 최근에 다시 각광을 받는 개념 중 하나로 ‘언어중재자(language broker)’의 연구가 있다. 이는 국어능력이 취약한 원어민 사용 부모를 대신하여 그 자녀가 이들의 도우미로 작용하는 경우 이 자녀를 일컫는 용어이다 (Buriel, Love, & De Ment, 2006; Dorner, Orellana, & Jimenez, 2008; Weisskirch, 2007). 기존의 해외 연구 결과는 언어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아동들은 어린 나이에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많아짐으로써 전반적으로 비슷한 사회경제적 수준의 또래아동들에 비해 인지적, 사회적으로 유능하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언어중재 능력은 높은 자기효능감과 정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Buriel et al., 1998), 학교에서의 성적도 더 높은 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Dorner, Orellana, & Li-Grining, 2007).

위의 예를 보면 다문화 경험이 언제나 개인의 발달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다문화경험을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이나의 축으로 쉽게 가릴 수 없음이 시사된다. 아직 국내에서 다문화경험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발표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개인적 적응에 대한 포괄적인 요인 중 하나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체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록 자기 보고에 근거한 것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 나라 언어와 한글을 모두 능숙하게 말할 수 있다는 이중언어자 응답은 증가하고 있는데(예,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6), 이는 다문화가정의 2세들이 점점 청소년으로 자라면서

이들의 언어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커지게 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주제들은 특별히 복잡한 방법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기존의 연구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도 충분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아동들의 언어중재 수준이 과연 구미에서 나타나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혹은 한국 특수적인 상황에 의해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언어중재 역할을 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국제결혼 아동, 그리고 일반 한국 아동간에 적응 및 인지 수준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주제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것들로써 앞으로 매우 유용하면서도 쉽게 검증해 볼 수 있는 심리학적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 다문화론에 대한 포괄적 논의

개관작업을 통해 드러난 두드러진 경향성 중의 하나는 한국이나 외국이나 다문화관련 연구에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는 문화적응론이라는 것이다. 표 2와 3에 따르면 아직도 외국에서 이민자 연구 중 가장 많은 수가 문화적응을 다루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상당비율의 연구가 문화적응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현재 문화적응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은 Berry의 문화적응론이다. Berry(1980)는 전통적으로 일방향이었고 집단적인 관점에서 기술되던 ‘동화론’에 입각한 문화적응론에 반대하여 개인에게 초점을 기울인 문화적응론을 제안하였다(Berry, 1998; Schmitz, 1994).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문화

적응을 취하는 방식을 크게 동화(assimilation: 새롭게 편입된 주류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따르는 방식), 분리(separation: 주류사회에 편입되길 거부하고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고수하는 방식. 연구자에 따라서 ‘문화사회화’-enculturation-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통합(integration: 주류문화와 고유문화를 모두 수용하고 유지하는 방식. 일부 연구자들은 ‘문화공존’-biculturalism-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주변화(marginalization: 주류문화와 고유문화를 모두 부정하는 방식)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Berry의 문화적응 구분은 이후 많은 후속연구들을 이끌었고 지지를 받아왔다(Berry, 1998; Berry & Kim, 1988; Peeters & Oerlemans, 2009). 하지만 비판점도 존재하고 있는데, 몇몇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는 이 구분이 기본적으로 신대륙으로 이민온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문화사회 형성과정이 다른 사회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Schwartz와 Zamboanga(2008)의 연구에 의하면 Berry의 네 가지 범주 중 ‘통합’ 부분은 다시 부분통합, 미국형 통합, 그리고 완전통합형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미국형 통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결과를 국내에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최근의 국내 연구에서는 국적에 따른 Berry의 구분의 분포가 다르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는데(최혜지, 2009), 이는 국내 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의 연구에 있어서는 국적을 중요한 변인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덧붙여, 최근 일부 연구자들은 Berry의 이론은 이민자의 주류사회에 대한 태도만을

중심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일방향이적이라고 주장하며(van Oudenhoven, Ward, Masgoret, 2006), 따라서 이민자의 태도뿐만 아닌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사회의 태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Bourhis, Moise, Perreault와 Senecal(1997)은 Berry의 모형을 확장시켜 이민자가 유입되는 사회구성원이 이민자에게 기대하고 있는 문화적응 유형과 정도에 이민자의 태도가 얼마나 맞아떨어지는가, 즉 이민자와 이민사회간의 태도의 적합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그 예로, van Oudenhoven(2006)은 대부분의 이민자는 ‘통합’유형을 바라지만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사회의 경우 ‘동화’유형을 바라는 경우가 많아 이 차이에 따른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하며, 다만 캐나다나 뉴질랜드와 같이 ‘통합’유형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덜하다고 밝히고 있다(보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박금주, 2008 참조).

이를 다시 해석하자면 현재 국내 연구들의 관행처럼 단지 Berry의 모델을 기계적으로 수용하는 것보다는 현재 한국에서 어떠한 정책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는지, 그리고 한국인이 어떤 식으로 이민자의 문화적 표현을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연구가 선행된 후, 그에 근거하여 한국식 문화적응이론을 각각의 이민자들의 국가별로 적용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 연구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자문화 중심주의 등에 국한되어 있고(예, 임성택, 2008), 문화적응에 대해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또 간간히 발표되는 다문화가정 논문들에서도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외국문화에 대한 수용도를



간단한 한마디의 질문으로 물어보는 식의 연구가 많은 편이다. 문화적응론에 대해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문화적응론의 유형을 제시한 후(예, 동화유형, 통합유형, 주변화유형 등) 이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묻는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이민수용사회 구성원으로써 현재 한국인이 선호하는 이주민의 문화적응 형태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심리학회지에 한국인 대상의 이문화 태도척도 연구가 발표되었는데(박주희, 정진경, 2008), 이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가 더욱 늘어날 필요가 있다.

####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연구 대상 및 주제의 확대

개관작업을 통해 드러난 국내연구들의 대표적인 경향중의 하나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 기존 연구의 한계인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 실제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행정자치부의 통계를 보면 2007년 현재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과반수인 약 60%는 취학전 아동이며 7-12세가 32.5%, 그리고 그 이상은 7.7%에 불과하다(행정자치부, 2007). 국제결혼이 급증하게 되는 시점이 2000년 이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수치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를 다시 해석한다면 현재 국제결혼 자녀의 숫자인 약 4만5천 중 60%인 약 27,000여명은 10년 이내로 청소년기에 접어든다는 의미이며 이는 결코 무시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 또한 이는 현재 아동발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결혼 자녀의 심리적 연구 주제가 좀 더 넓혀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국내 심리학계도 이 부분을 미리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내연구의 결과들에 의하면 국제결혼 자녀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고하는 편으로써 이는 일반적인 아동들의 발달추세와는 반대되는 경향성이다(양순미, 2007b; 정현영, 2007). 이는 이들이 청소년으로 자라면서 특히 적응과 관련된 이슈들이 급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제결혼 가정의 아동에 있어서의 심리적 문제점이 주로 외현적인 차이에서 오는 사회성 발달의 문제라든지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의 한계에 의한 인지, 언어적 문제가 많다면 청소년기의 문제는 자아정체성등 주로 심리적 발달변인에서 비롯되는 주제가 많다는 점에서 아동과 청소년기를 특화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 청소년 적응, 그리고 문화적응 등의 맥락을 아우르는 연구들이 앞으로 다문화가정 관련 심리학적 연구의 주요한 주제로써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현재 서구에서는 주로 영어사용과 문화 정체성, 자아존중감의 문제(예, Vedder, 2005), 청소년기 증가하는 우울감 등 정신건강상의 문제(예, Ying & Han, 2007), 문제행동과 관련변인에 대한 문제(예, Georgiades et al., 2006), 자기상이나 외적차별의 지각등 사회적 관계에 대한 문제(예, Mesch, Turjeman, & Fishman, 2008), 그리고 학업이나 진로선택의 문제(예, Taylor & Graham, 2007)등에서 소수인종 및 문화적 차이가 어떠한 경로로 청소년기 적응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가까

운 미래에 이와 유사한 주제를 이용한 관련연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 이주민과 그 가족에 대한 연구

2007년 현재 국내거주 외국인인 70만이 넘어서면서 전체 총인구의 1.5%에 해당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7). 또 이 수치는 매년 약 30%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국제결혼을 통해 유입된 숫자만 보면 86%가 여성이며 14%는 남성이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거의 대다수의 매스컴과 학계의 관련 논문은 국제결혼이주자는 당연히 ‘여성’이라고 한정짓고 있다. 물론 실제로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 국제결혼 이주자의 대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시각이라 볼 수는 없다. 다만 비록 소수지만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남성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현재까지는 거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인이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는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형태의 결혼은 또 대다수 한국인 처가 외국인 남편이 거주하는 국가로 이주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결혼 생활이나 그들의 2세의 심리적 적응을 한국의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있어선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결혼의 추세는 조금이나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표 5는 국내에 등록된 국제결혼 중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간의 국제결혼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따르면 몇 가지 점을 주목할 수 있는데, 첫째, 비록 외국인 처와 한국인 남성의 결혼처럼 10여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하지는 않고 있지만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비스

표 5. 연도별 외국인 남편 - 한국인 처 결혼건수

남편국적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일본	3001	2377	2613	3672	3756
중국	222	272	1199	5042	2597
미국	1132	1210	1237	1413	1455
독일	97	84	93	85	129
캐나다	164	174	223	285	308
프랑스	58	80	78	76	98
호주	79	89	108	102	139
파키스탄	64	64	126	103	219
기타	401	484	763	1047	848
계	5228	4896	9853	11941	9482

(출처: 통계청, 2008)

한 증가율이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도 5년 새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 특히 중국인 남편의 경우는 2002년 200여건의 결혼에서 2005년 한해의 예는 5000쌍이 결혼을 하여 23배 가까이 증가율을 보였으며 파키스탄인 남편과의 결혼도 64건에서 219건으로 약 3.5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둘째, 이 통계치는 통계청이 시도별로 작성한 것을 통합한 것으로 이 표에 제시된 대다수의 부부는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우리나라 여성이 국제결혼을 해왔던 형태와 많이 다른 모습이며, 다시 말하면 이들과 이들의 자녀들 역시 다문화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써 지금까지 다루었던 심리적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이며 국내의 심리학자들의 연구범위에 속해있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셋째, 이들의 자녀가 외국인 여성이 어머니인 다문화가정의 자녀들과 완전히 같은 양상으로 발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리기가 어렵다. 일단 이들 가정의 자녀들의 경우 일반적인 농어촌 지역 다문화가정과 이질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데, 첫째, 이들의 대다수가 농어촌 지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업 및 제조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이들의 양육을 맡고 있는 어머니의 경우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문화충격이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 셋째, 그러한 이유에서 이들이 갖게 되는 적응상의 문제는 오히려 전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혼혈아에 대한 시각’등의 사회적 편견에 국한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인지적이거나 언어적 문제점을 보여줄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시기

상조인데, 현재까지 사회학이나 페미니즘 관점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인 여성들을 조사한 학위논문이 종종 발표되고는 있으나(예, 정혜실, 2007; 조성원, 2000), 이들에 대한 국내 심리학적 연구는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물론 표 5에 제시된 수치 자체는 아직 미미한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국제결혼 증가의 추세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가까운 미래에 주목받을 가치가 있는 주제이다. 예컨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 사이에 태어난 아동과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처 사이에 태어난 아동간의 문화차에 따른 적응양식의 차이 등을 연구해 보는 것도 양육과 아동발달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 맺는 말

다문화가정에 대한 국내 학계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아직까지 ‘실태조사’ 수준에 국한된 경우가 많고, 연구의 해석에 있어서도 객관적 자료보다는 다소는 인권론적인 원칙주의에 입각하여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글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심리학적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해 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대두 될 다문화관련 심리학적 연구의 주제들을 예상해 본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글은 일단 현재까지의 다문화가정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경험적으로 찾는 데에 첫 번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기존 연구 중 많은 수의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공

통분모인 ‘방법론적으로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한 게재지 논문들’로만 한정하여 구체적인 개관을 하였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적응, 아동의 적응, 아동의 언어력이라는 다소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 글에서 취한 이러한 방식은 장점과 동시에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유형이 형성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시기는 오히려 양적 연구를 고집하는 것 보다 심층면접이나 질적 연구에 눈을 돌리는 것도 좋은 접근이며,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하여 연구의 함의를 높이는 것은 적극 권장되는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학회지의 성격상, 그리고 본 저자가 질적 연구에 대한 개관을 할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은 생략하였지만 추후에 질적 연구만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특수성을 탐구하는 개관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해서, 본 연구가 취한 개관의 방식은 본 글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본 글을 작성하는데 있어 대두된 어려움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개관 논문은 ‘특정 심리적 변인의 효과’와 관련된 주제 중심의 접근을 한다는 점이었다. 그에 반해 ‘다문화가정’은 심리적 변인이라기보다는 사람으로 구성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관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의 심리적 측면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두 가지 변인만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연구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도 개관작업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반면 본 글이 취한 방식은 특정 변인을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중심으로 될 수 있는 한 넓은 범위에서 연구들을 정리해 보는 방식이다(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세세한 표현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림에 있어 밑그림이 그렇듯이, 본 글이 취한 이러한 방식은 개관의 포커스가 흐려지거나 내용면에서 많은 주제를 피상적으로밖에 다룰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림에 있어 밑그림이 필요한 것처럼, 전체적인 연구의 양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작업이자 오히려 추후의 보다 심도 깊은 개관을 위한 첫 번째 선결작업이라는 점에서 본 글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글의 대체적인 구성은 전수검사를 통해 기존 연구의 주제별, 방법론적 특징들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미래에 대두될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 연구의 특징들은 대체로 국내 다문화 연구들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불가항력적인 면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 연구가 없다는 것은 다문화 청소년이 적은 지므로써는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적응론에 대한 논의도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불가항력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이 주제가 주는 사회적 과급력을 생각하였을 때 조금은 무책임한 시각이다. 심리학자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방법론의 부분이나 심리학의 고유문제들이 다른 비전문가의 손에 의해 다루어지고, 또 그로 인해 왜곡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 중 일부는 심리학계가 짊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의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다

문화가정과 관련된 보도들은 타당한 절차를 가지고 수행된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기 보다는 매우 선정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심리학자들의 기여도는 표 4에서 확연히 드러났듯이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인데,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이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자본주의가 90년대 이후 전 세계의 절대적 경제질서의 원리가 되고 해외 이주가 상대적으로 쉬워지면서 이제 경제적 차이가 존재하는 두 국가 구성원간의 결혼은 범세계적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 시작은 비록 농어촌 성비해소라는 다소 단기적인 정책적 안목에서 출발한 것일지는 몰라도 결국 국제화의 조류를 타고 인젠가는 다루어야 할 주제인 것이다. 현재 국제결혼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을 보았을 때 그 양적인 증가에 맞는 질적인 향상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그 말을 다시 해석하자면 아직 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학문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고 할 수도 있다. 심리학계에서도 최근 국제결혼 어머니 및 자녀들의 심리적 적응과 문화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가능성을 인지한 학계 구성원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다문화가정이 단지 한명의 개인의 독특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들을 둘러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과 연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연구들은 보다 다양한 학제간 프로젝트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심리학 역시 이러한 다양한 학제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석광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기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수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6). 국제결혼 가족 및 아동 실태조사. 대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박금주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 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 26.
- 구효진 · 최진선 (2007).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 43-67.
- 권근영 · 박근우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라남도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14, 187-219.
- 권미지 · 박상희 · 석동일 (2007). 이중언어 환경 아동의 음운변동특성.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 299-318.
- 권복순 · 차보현 (2006).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 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 109-134.
- 권성우 · 장재운 (2008). 다문화주의와 창의성: 다양성의 긍정적 효과. 2008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3-82.
- 김도희 · 김성이 · 신호진 (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 연구. 가족과 문화, 19, 53-78.
- 김선정 · 강진숙 (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휘력 고찰. 이중언어학, 40, 31-55.
- 김영옥 · 임진숙 · 정상녀 (2008).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른 양육태도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3, 143-164.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 63-106.
- 김오남 (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2, 47-73.
- 김진희 · 박옥임 (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8, 127-160.
- 박경자 · 김송이 (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아동학회지, 28, 91-108.
- 박순희 · 조원탁 · 이주희 (2008).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적응과 관련변인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7, 53-76.
- 박원경 · 안성우 · 서유경 · 신영주 (2007). 국제결혼가정아동의 언어 능력과 지식기반, 처리기반에 대한 차이 비교. 특수아동교육연구, 9, 211-230.
- 박재규 (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민자여성의 이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사회, 17, 75-105.
- 박정숙 · 김진희 · 박옥임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 59-71.
- 박주희 · 정진경 (2008). 타문화에 대한 태도 발달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 1-12.
- 박행모 · 문승태 (2008).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사회생활 적응 교육을 위한 실태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0, 69-91.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과천: 보건복지부
- 서홍란 · 김기언 · 김양호 (2008). 베트남 여성 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 121-143.
- 송미영 · 박경희 (2008).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6, 53-70.
- 안양희 (2008). 일 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2, 18-26.
- 안효자 (2008). 일개 시 농어촌 다문화가족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7, 383-391.
- 안혜령 · 이순형 (2009).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 비교. 아동학회지, 30, 1-10.
- 양순미 (2007a).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농촌사회, 16, 151-179.
- 양순미 (2007b).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에 작용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 559-576.
- 우현경 · 정현심 · 최나야 · 이순형 · 이강이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30, 23-36.

- 이귀옥 · 전해정 · 박혜원 (2003). 3-5세 아동의 이중언어 경험과 인지능력 및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 인지적 복잡성에 따른 분석과 통제이론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4, 1-14.
- 이영주 (2007).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 83-105.
- 이영주 (2008).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응요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3, 79-101.
- 이정희 (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과 이혼위기에 대한 사례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 (2007).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연구*, 12, 21-42.
- 이현경 · 서현 · 김동례 (2009). 다문화 가정 유아의 발달에 관한 조사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 1-24.
- 임성택 (2008). 한국 청소년의 자민족중심주의와 국내전입 외국인집단별 수용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5, 189-206.
- 전은애 (2008).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아동 상호작용과 어머니 문화적응차원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윤정 (2007). 결혼이민자 가정의 특성과 아동들의 학교적응: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과 언어 환경. *언어치료연구*, 13, 33-52.
- 정천석 · 강기정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 5-23.
- 정현영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승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실 (2007).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 파키스탄 커플모임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원 (2000).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계층 한국여성의 결혼사례를 통해 알아본 새로운 마이너리티의 형성 및 재생산.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지 (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 163-194.
- 통계청 (2008). 연도별 외국인과의 혼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행정자치부 (200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 행정자치부.
- 홍달아기 · 채옥희 (2007). 국제결혼부부의 가치관 및 의사소통유형과 갈등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 733-744.
- 황상심 · 정옥란 (2008). 경상도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13, 174-192.
- Abril, C. R. (2006). Learning outcomes of two approaches to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usic Education*, 24, 30-42.
- Bengi-Arslan, L., Verhulst, F. C., & Crijnen, A. A. M. (2002). Prevalence and determinants of minor psychiatric disorder in Turkish immigrants living in the Netherland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7,

- 118-124.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M. Padilla (Ed.), *Acculturation: Theory, models, and some new findings* (pp. 9-25). Boulder, CO: Westview.
- Berry, J. W. (1994).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An overview. In A. Bouvy (Ed.), *Journeys into cross-cultural psychology* (pp. 129 - 141). Amsterdam: Swets & Zeitlinger.
- Berry, J. W. (1998). Acculturation and health. In S. S. Kazarian & D. R. Evans (Eds.), *Cultural clinic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39-6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rry, J. W., & Kim, U.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P. Dasen, J. W. Berry, & N. Sartorius (Eds.),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Towards applications* (pp. 207 - 238). Newbury Park, CA: Sage.
- Bourhis, R. Y., Moise, L. C., Perrault, S., & Senecal, S. (1997). Towards an interactive acculturation model: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2, 369-386.
- Bruel, R., Love, J. A., De Ment, T. L. (2006). The relation of language brokering to depression and parent-child bonding among Latino adolescents. In M. H. Bornstein & L. R. Cote (Eds.), *Accultura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Measurement and development* (pp. 249-270).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uriel, R., Perez, W., De Ment, T. L., Chavez, D. V., & Moran, V. R. (1998). The relationship of language brokering to academic performance, biculturalism, and self-efficacy among Latino adolescent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0, 283-297.
- de Wit, M. A. S., Tuinebreijer, W. C., Dekker, J., Beekman, A. T. F., Gorissen, W. H. M., Schrier, A. C., Penninx, B. W. J. H., Komproe, I. H., & Verhoeff, A. P. (2008).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in different ethnic groups: A population based study among native Dutch, and Turkish, Moroccan and Surinamese migrants in Amsterdam.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3, 905-912.
- Dillon, F. R., Felix-Ortiz, M., Rice, C., De La Rosa, M., Rojas, P., & Duan, R. (2009). Validating the Multidimensional Measure of Cultural Identity Scales for Latinos among Latina mothers and daughter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5, 191-201.
- Dorner, L. M., Orellana, M. F., & Jimenez, R. (2008). "It's one of those things that you do to help the family": Language brokering and the development of immigrant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3, 515-543.
- Dorner, L. M., Orellana, M. F., Li-Grining, C. P. (2007). "I helped my Mom," and it helped me: Translating the skills of language brokers into improved standardized test scores.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13, 451-478.
- Duru, E., & Poyrazli, S. (2007). Personality dimensions, psychosocial-demographic variables, and English language competency in predicting level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 Turkish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4, 99-110.
- Endicott, L., Bock, T., & Narvaez, D. (2003). Moral reasoning, intercultural development, and multicultural experiences: Relations and cognitive underpinn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 403-419.
- Georgiades, K., Boyle, M. H., Duku, E., & Racine, Y. (2006). Tobacco use among immigrant and nonimmigrant adolescents: Individual and family level influence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8, e1-e7.
- Glenn, E. N. (1986). *Issei, Nisei, war bride: Three generations of Japanese American women in domestic service*.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 Helman, C. G. (1990). *Culture, health and illness*. London, UK: Wright.
- Kamperman, A. M., Komproe, I. H., de Jong, J. T. V. M. (2007). Migrant mental health: A model for indicators of mental health and health care consumption. *Health Psychology*, 26, 96-104.
- Kwak, K. (2009). *Adaptation and child development of Korean multicultural family: Focusing on mother-child interaction*.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SRCD, Denver, CO.
- Leung, A. K., & Chiu, C. (2008). Interactive effects of multicultural experiences and openness to experience on creative potential. *Creativity Research Journal*, 20, 376 - 382.
- Leung, A. K., Maddux, W. W., Galinsky, A. D., & Chiu, C. (2008). Multicultural experience enhances creativity: The when and how. *American Psychologist*, 63, 169 - 181.
- Lindert, J., Schouler-Ocak, M., Heinz, A., & Priebe, S. (2008). Mental health, health care utilisation of migrants in Europe. *European Psychiatry*, 23, S14-S20.
- Lynch, E. W. (1992). From culture shock to cultural learning. In E. W. Lynch & M. J. Hanson (Eds.), *Developing cross-cultural competence: A guide for working with you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pp. 19 - 34). Baltimore: Paul H. Broome.
- Maddux, W. W., Leung, A. K., Chiu, C., & Galinsky, A. D. (2009). Toward a more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link between multicultural experience and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64, 156-158.
- McLaughlin, K. A., Hilt, L. M., & Nolen-Hoeksema, S. (2007). Racial/ethnic differences i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symptoms i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801-816.
- Mesch, G. S., Turjeman, H., Fishman, G. (2008).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the well-being of immigrant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 592-604.
- Peeters, M. C. W., & Oerlemans, W. G. M.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orientations and work-related well-being: Differences between ethnic minority and majority employee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6, 1-24.
- Rich, G. J. (2009). Big C, little c, Big M, little m. *American Psychologist*, 64, 155 - 156.
- Rogler, L. H., Cortes, D. E., & Malgady, R. G. (1991).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Hispanics: Convergence and new

- directions for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46, 585-597.
- Schmitz, P. (1994). Acculturation styles and health. In S. Iwawaki, Y. Kashima, & K. Leung (Eds.), *Innovation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pp. 360-370). Lisse, Netherlands: Swets & Zeitlinger.
- Schwartz, S. J., & Zamboanga, B. L. (2008). Testing Berry's model of acculturation: A confirmatory latent class approach.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 275-285.
- Sodowsky, G. R., & Lai, E. W. M. (1997). Asian immigrant variables and structural models of cross-cultural distress. In A. Booth (Ed.), *International migration and family change: The experience of U. S. immigrants* (pp. 211 - 237). Mahwah, NJ: Erlbaum.
- Statistics Netherlands (2009). *Population; Sex, age, marital status, origin and generation*. Retrived from WWW. <http://statline.cbs.nl>.
- Stevens, G., & Vollegergh, W. A. M. (2008). Mental health in migrant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 276-294.
- Taylor, A. Z., & Graham, S. (2007).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values and perceptions of barriers among low-SES African American and Latino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 52-64.
- van Oudenhoven, J. P. (2006). Immigrants. In D. L. Sam, & J. W. Berry (Eds.), *The Cambridge handbook on acculturation psychology* (pp. 163-180).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Oudenhoven, J. P., Ward, C., & Masgoret, A. (2006). Patterns of relations between immigrants and host socie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0, 637-651.
- Vedder, P. (2005). Language, ethnic identity, and the adaptation of immigrant youth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0, 396-416.
- Walsh, S., Shulman, S., & Maurer, O. (2008). Immigration distress, mental health status and coping among young immigrants: A 1-year follow-up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2, 371-384.
- Weisskirch, R. S. (2007). Feelings about language brokering and family relations among Mexican American early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7, 545-561.
- Ying, Y., & Han, M. (2007). The longitudinal effect of intergenerational gap in acculturation on conflict and mental health in Southeast Asian American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7, 61-66.

1차원고접수 : 2009. 10. 07.

수정원고접수 : 2009. 11. 13.

최종게재결정 : 2009. 11. 23.

##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in Korea: A Critical Review**

**Kim, Geunyoung**

Dept. of Psychology  
Hallym University

**Kwak, Keumjoo**

Dep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ae, Soyeong**

Div. of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Hallym University

Many social scientists have shown keen interest in the way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adjust themselves to live in Korea. The present study is designed to summarize recent research trends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to critically review contemporary studies' limitations, and to propose future topics for the next decade. Based on complete enumeration, it is suggested that more studies about father's contributions and about adolescent members are needed. Topics such as benefits of multi-cultural experiences, psychopathologies of immigrant members, and development of acculturation styles in Korea are also suggested for possible topics that have not been thoroughly investigated yet. Regardless of research topic, future studies should include Korean control groups in their research design, to warrant appropriate comparisons between immigrant families and native Korean families.

*Key words* : *Immigrant family in Korea, Multi-cultural family members, international marriage, literature review*